

내년도 尖端技術개발에 1천억원 투자

李寬과기처장관, 간담회서 밝혀

生命공학·航空우주 등 57개과제 선정추진



〈李寬 장관〉

政府는 내년에 1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확보, 초전도체, 신물질창출, 생명공학, 레이저光 기술·항공우주등 57개의 국책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李寬과과학기술처장관은 7월29일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국책 연구개발사업은 기술선진국으로의 조기도약을 위해 필요한 전략적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産·學·研이 공동 참여하는 가운데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특히 내년초부터 92년까지 정부와 민간기업체가 공동으로 1천9백억원을 투입, 16메가 D RAM과 64메가 D RAM을 개발, 반도체분야에서 최첨단기술을 확보하고 물질특허제도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신물질 창출과 모든 산업의 고도화에 필수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등의 중점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개발분야별 중점추진과제수는 △ 과학산업원천기술개발 3개과제(85억원) △ 신물질창출 3(1백억원) △ 생명공학 핵심기술 3(47억5천만원) △ 신소재기술 10(70억원) △ 초고집적·초고속반도체개발 4(80억원) △ 슈퍼미니컴퓨터개발 3(30억원) △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3(42억원) △ 시스템엔지니어링기술 7(1백억원) △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 4(65억원) △ 공업화공정 기술 4(30억원) △ 자원기술3(18억원) △ 항공·우주·해양

기술 3(35억원) △ 공공복지기술 2(20억원) 등이다.

李장관은 또 최근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현행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분산관리체제로의 전환과 일부 연구기관의 민營化등의 주장에 대해 출연연구기관들을 과기처에서 통합지원하는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氣象자동예보응답

전국 42개지역으로 확대

中央氣象台는 7월1일부터 서울, 부산등 20개 도시지역에 이어 온양, 목포, 울릉도등 22개 시·군지역에 대해서도 전화번호 131번에 의한 自動예보응답 지역을 확대했다.

이로써 전국 42개지역에서 전화번호에 국번없이 131번으로 일기예보가 자동응답된다.

KGLP 적격기관으로 지정돼

化學研 안전성연구센터, 保社部로 부터

韓國化學연구소 安全性연구센터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保社部로부터 KGLP(의약품 안전성시험관리기준) 적격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화학연 안전성연구센터가 KGLP적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국내제약업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시도하고 있는 新藥개발에 필수적인 안전성실험을 국내에서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됐다.

化學研 안전성연구센터는 지난 6년동안 의약품 농약·환경오염물질의 안전성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급·만성독성 등 일반독성시험과 발암성 생식독성 돌연변이등 특수독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현재 1천2백여평의 동물실험실에 무병원균 특수실험동물인 SPF를 비롯 마우스·랫트등의 크고 작은 동물들을 보유하고 있다.

基礎研究 지원센터 設立 시급

科總, 연구보고서 통해 建議

高價 연구기자재·研究人力 공동 활용토록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우리나라가 2천년대 목표로 삼고 있는 세계 10위권의 기술선진국 구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고조된 기술개발분위기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초과학육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어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으로 기초연구지원센터를 설립, 기초과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견의했다.

과총이 최근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기초연구지원센터설립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창출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연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학부설 기초과학연구소가 투자재원의 한계때문에 구입이 어려운 고가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비치하고 대학에 있는 연구인력의 공동활용,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 기초과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보다 더 심도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총은 기초연구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사연구하여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펴낸 이 연구보고서에서 기초연구지원센터는 전국 대학 및 공·사립 기초과학연구기관의 공동이용 정밀기기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주기능을 두고 ▲정밀고가기기의 비치와 이용제공 ▲측정 분석 등 위탁업무의 수주 ▲기기의 위탁수리 및 보정 ▲문헌자료의 비치와 이용제공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형

성운영 ▲정보지의 편찬제공 ▲내방이용자를 위한 연구실 및 숙소의 제공 ▲기기분석등 강습실시 ▲기기의 국산화연구, 각종 측정법의 개량연구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센터에는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기기부, 행정실, 공작실을 두도록 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초과학관련학회(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대한수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가 참여했으며 연구수행과정에서 문교부 학술진흥위원회 기초과학분과위원회와 전국대학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다.

一時誘致 과학자에 체재비 支援

科學財團, 유치사업 확대 실시키로

韓國科學財團(이사장 崔順達)은 在外 한국인과학자를 일시 유치할 경우 종래 왕복항공료만 지급하던 것을 왕복항공료와 함께 月 1천불까지의(6만원/日)체재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外國人석학의 경우 왕복항공료는 물론 月 1천5백불(1십만원/日)의 체재비와 함께 月 3천불이내의 기술료등을 지원할 방침인데 외국인 석학 유치는 국내의 자체개발이 어려운 특수분야에 대한 기술지도, 강의, 자문등을 할수 있는 외국인과학자라 한다.

동재단은 2천년대를 향한 과학기술 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된 기술개발분야중 해외의 최첨기술 흡수가 필요하고 국내 공급이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해외의 고급 한국계 과학기술자 및 외국인석학을 유치하여 그들의 첨단과학기술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선진제국의 첨단과학기술을 조기에 국내에 이전하고 취약한 국내연구개발능력을 보완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68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國家科學技術 발전방안 模索

政策세미나서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제시

과학기술정책합동세미나 및 제2회 출연연구기관장회의가 7월23~24 양일간 아카데미하우스에서 李寬 과학기술처장관을 비롯한 과장급이상 간부들과 산하연구기관장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科學技術立國의 位相을 재조명해보고 국가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 李寬장관은 人事말을 통해 『民主化時代를 맞아 정부부처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이색적인 모임인 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정부 및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고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정책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 참가자 모두가 의견을 개진하는 브레인 스토밍방식으로 國策연구개발사업의 발전적 확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정립이란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는 서울대 趙淳교수의 「향후 경제사회변화의 전망과 과학기술혁신방향」에 대한 기초강연과 각계인사의 「과학기술처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바란다」 과학기술처 朴勝德연구개발조정실장의 「國策연구개발사업의 발전적확대와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崔永煥기획관리

실장의 「미래를 지향하는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방향의 모색」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한편 제2회 정부출연연구기관장회의에는 과기처산하 9개 출연연구기관장을 비롯 부설연구기관장 및 과기처관계관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國策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등 3개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출연연구기관의 인사관리 효율화방안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발전적 추진방향등이 집중적으로 토론되었다.

李장관은 이 자리에서 『人事관리제도는 외국의 예를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우리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감안하여 최적모형을 강구한 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가능한한 2천년대 과학기술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電子분야 연구결과 발표

科技處 88 특정연구과제중

과학기술처 금년도 특정연구개발 과제중 전자분야 연구결과발표회가 7월28일~29 양일간 한국과학기술원(동부지역)에서 열려 43개 연구과제의 연

구결과논문 78편이 발표됐다.

한국정보과학회를 비롯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통신학회 등 4개학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처가 주관한 이번 발표회는 「컴퓨터기술」분야를 비롯 「소프트웨어기술」 「반도체기술」 「통신기술」 「생활정보」 「천문우주과학」 「계측제어기술」분야 등 전자분야 43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논문 78편의 발표와 과제평가위원들의 과제별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최종평가로 진행됐다.

味元·柳韓洋行研수상

鄭進基논문문화상 施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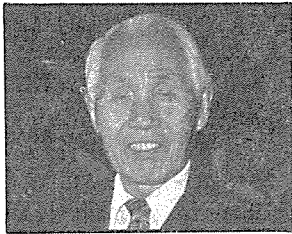
재단법인 鄭進基논문문화재단(이사장 李瑞禮)은 88년도 정진기언론문화상 과학기술부문 大賞수상자로 味元기술연구소의 L-페닐알라닌 개발팀(대표 林繁三)과 柳韓洋行중앙연구소의 소염효소개발팀(대표 金忠燮)을 선정하고 7월16일 매일경제신문사 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每日經濟신문사의 故 鄭進基창업주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큰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자와 경제·경영도서저자에게 수여되고 있는 이 정진기언론문화상은 올해로 과학기술부문은 여섯번째, 경제·경영도서부문은 다섯번째를 맞았다.

이번 과학기술부문 대상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6백50만원과 상패, 금메달이 수여됐다.

秋空 吳楨洙翁 永訣式엄수

과학기술專門圖書室 설치등 國家에 큰 功獻



故 吳楨洙翁

韓國 과학기술단 체총연 합회 고문인 秋空 吳楨洙翁의 영결식이 8월9일 과총 閔寬植 명예 회장, 金東一 상임고문 등 관련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병원 영안실에서 엄수됐다.

기독교식으로 거행된 이날 영결식은 신기찬 목사의 집례로 金東一 과총상임고문의 弔辭, 馬景錫 한국엔지니어클럽 명예 회장의 故人에 대한 약력 소개에 이어 유족과 조객들의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故 吳楨洙翁은 8월5일 상오 6시30분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899년 平南 江西郡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故人은 1917년 미국으로 건너가 소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거친후 1927년,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美 MIT공과대학을 마쳤으며 美 군정청상공부장, 평양 숭실전문학교교수, 무역협회부회장등을 역임했다.

4.19후 체신·상공부장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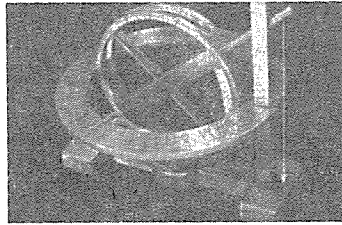
지낸 吳翁은 1951년 수출상품의 생산과 무역진흥을 위해 한국무역진흥주식회사를 설립, 84

년까지 사장직을 역임했으며 1983년에는 私財 1억5천만원을 과학기술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기금으로 科總에 기증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다.

故人の 유해는 경기도 장호원 진달래공원묘지에 안장됐다. 유족은 1男2女.

世宗대 해시계 「定南日晷」

標準研서 國內 최초로 復元



世宗大王이 양부일구등 일련의 천문기구와 함께 제작된 해시계인 定南日晷가 한국표준연구소에 의해 복원되었다.

한국표준연구소가 지난해에 수행한 「측정표준사료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원한 이 해시계는 지평환, 사유환, 시각판, 가늌대, 수준기와 남·북 기둥 및 추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평환과 가늌대의 구멍에 햇빛을 통과시켜 지남침을 사용하지않고도 정남의 방위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은 물론 24절기와 태양의 고도까지도 측정할 수 있도록 혼천의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높이 22.9cm에 길이가 25.8cm로 전체 재질이 구리인 이 해

시계의 기능은 남북기둥에 수평으로 자리잡은 지평환에 24절기와 각 방위가 표시되어 있고 지평환의 동심축으로 관측지의 북극 고도의 기울기로 주천도가 새겨진 사유환이 쌍가락지 모양으로 기둥에 걸려있어 태양의 고도에 따라 동서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쌍가락지 사이에 가름대가 걸쳐있어 절기에 따라 상하로 움직여 사유환과 함께 햇빛을 유도하여 시각을 연출한다.

또한 사유환과 직각으로 지평환아래에 반고리모양의 시각판이 걸려있어 당시의 시각법인 100각이 표시되어 있으며 받침대인 수준기에는 홈이 패어 있어 여기에 물을 담아 해시계의 수평을 잡는데 쓰이는 한편 지남침을 띄워 방위를 잡는데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북쪽 기둥끝에는 추를 매달아 해시계가 수직되도록 잡는다.

秋空 吳植洙님의 逝去를 애도함

“科學技術발전이 國家발전 信念” 실천

秋空 吳植洙선생님께서 年初까지 만해도 우리 과학기술계 여러 모임에 거의 빠지지 않고 건강 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빨리 전쾌하시기를 기원하였는데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되니 그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舊韓末의 어지러운 시대에 平南 江西郡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소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세가 빈곤하여 1년여를 부모의 농사일을 돕다가 13세의 어린시절부터 苦學의 길로 나서는 등 初年에 남다른 고생을 겪게 되었으나 강철같은 인내심과 투철한 학력으로 평양광성학교, 서울경신중학, 중국上海의 영어강습소를 거쳐, 한 독지가의 도움을 얻어 美國行 貨物船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美國에서 소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을 다시 마치고 1927년 대망의 MIT공과대학에 입학하여 韓國人 으로서는 最初로 이 世界的인 명문대학의 졸업생이 되는 영예를 가지게 될 때까지 선생님께서 美國유학 15년간의 고향생활을 온갖 노동과 고행으로 이를 극복하셨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에서 취직하여 편안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으나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곧장 귀국하는 또다른 용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日帝治下에서 갖은 압박을 당하고 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가시밭길을 택한 것은 선생님의 뜨거운 애국심의 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선생님께서 우리 국가와 민족의 살길은 과학기술과 공업의 발전에서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90평생을 일관하여 이를 실천하셨습니다. 이리하여 日帝時代에는 中國 安東市에

선생님의 기술로 큰 스타치工場을 건설하여 한때 큰 成功을 거두셨으나 여기에서도 日帝의 탄압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8·15해방 이후 한때는 商工部長官 또는 채신부장관으로 화려한 官職을 거치기도 하셨으나 언제나 청렴결백, 공정무사로 선생님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후 선생님께서 韓國貿易振興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출상품의 생산과 무역진흥을 위하여 이를 실천하여 오셨습니다. 한편 선생님께서 1952년 釜山 피난시절에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前身의 하나인 大韓技術總協會를 창립하여 初代會長에 피선되었고, 그후 서울國際사이언스클럽의 회장과 명예회장에 취임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부터 선생님의 평소 생활신념인 근검절약의 열매의 하나로 저축하였던 淨財로 무진과학기술장학회를 설립하여 現在 그 基金이 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또 1983년에는 과학기술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기금으로 1억원을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기증하여 그 고귀한 인격과 아울러 전국 과학기술자의 숭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비록 우리들 곁을 떠나가십니다마는 이처럼 선생님이 남기신 정신적 유산의 풍요함에 우리들은 애끓는 마음속에서도 선생님을 우러르며 애도의 열을 자제코자 하오니 秋空선생님이시여, 부디 먼길 편안히 떠나시옵소서!

1988년 8월 9일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삼일고문 金 東 一

大賞에 「레버식 휠체어」

學生科學발명품 경진대회

제10회 全國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忠南 牙山中3년 李錫河군(15세)이 출품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레버식 휠체어」, 국무총리상은 慶北 울릉국교5년 朴晉賢군(11세)이 출품한 「세포스케치 및 관찰을 위한 현미사광기」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金賞은 「벼육묘 상자뜨는 편리한 기구」를 출품한 大田 백운국교5년 李鎬性군(11), 「공기의 흐름과 공기의 저항 측정장치」를 개발한 光州 수창국교6년 金亮勳군(11), 「재미있는 놀이 인장」을 고안한 慶北 천포국교6년 李眞英양(12)에게 돌아갔다.

이 밖에도 銀賞 24명, 銅賞 60명과 서울수도전공 등 14개교에 학교단체상이 주어졌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 교생의 작품 6천1백43점이 출품돼 지방예선을 거친 생활과학부문 1백31점, 학습용품 94점, 과학완구부문 49점등 모두 2백74점이 본선에 올랐었다.

입상자가운데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와 지도교사, 금상수상자 3명등에게는 15일간 유럽각국의 근대과학발상지와 과학교육시설을 견학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한편 입상작품은 7월5일부터 19일까지 국립과학관에서 전시된다.



韓國土讓肥料學會

韓國土讓肥料學會는 7월2일 충북대학교에서 금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열고 사회장에 朴天緒맥류연구소장을 선임하고 부회장에는 金瑩玉계주대교수·愼鏞華농약연구소장·嚴基泰농기연 토양물리과장·林善旭서울농대교수·河浩成경상대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또한 학술발표회에서는 「우리나라 토양의 입경분포 및 화학적 특성」등 36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한편 동학회는 이에 앞서 1일에는 창립20주년 기념식 및 분야별 review paper발표회를 개최하고 토양조사, 토양화학, 토양물리, 토양광물, 토양수문, 영양생리, 산림토양, 비료, 토양비옥도, 토양미생물 등 10개분야별 발표를 가졌다.

大韓口腔生物學會

大韓口腔生物學會는 6월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금년도 정기총회에서 서울대 丁東均교수(치과대학)를 사회장으로 선출하고 김중수총무이사등 임원

진을 모두 유임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전북대 지은정교수와 서울대 민병무교수등 2명의 연사의 특강도 있었다.

이날 총회는 또 8월11~12일 양일간 내장산에서 제2차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는데 이번 워크숍에서는 구강생화학, 구강생리학, 구강미생물학, 치과약리학등 4개분야에 걸쳐 구강생물학분야의 학습목표설정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韓國雜草學會

韓國雜草學會는 6월24~25일 양일간 경북대학교에서 금년도 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사회장에 李東右 경기도 농촌진흥원 시험국장, 부회장에 朴錫洪작물시험장 수도재배과장·愼鏞華농약연구소장을 각각 선임했다.

韓國高分子學會

韓國高分子學會(회장 盧益三)는 8월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속리산관광호텔에서 제10회 高分子학계대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도성 고분자의 물리적 특성 및 응용성」 「Ziegler-Natta중합의 발전」 「의용고분자재료의 연구와 생체적합성」 「수팽윤성 고분자

「FTIR을 이용한 고분자재료의 분석」 「고분자의 기계적 물성」 「내열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온성 폴리머」등의 강연과 고분자재료 개발경험 및 업계 현황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고분자토론이 있었다.

韓國經營科學會

韓國經營科學會(회장 羅雄培)는 7월19일 학회사무실을 판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내로 옮겼다.

전화 883-2592(직통).
886-0101(교 3353)

韓國家庭管理學會

韓國家庭管理學會(회장 文淑才) 제11차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7월2일 이화여대 가정대학관에서 열려 한상준건국대교수의 「가정관리학과 HEIB에 대한 연구보고」등 6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역할과 기능」 「한국 HEIB의 사례발표」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 만족-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정약용의 가정교육관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 유지관리 체계화를 위한 결함의 현황과 수선시기에 관한 연구」등이 발표됐다.

韓國酪農學會

韓國酪農學會는 7월16일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금년도 정기총회 및 제15회 학술발표회에서 새회장에 李載英성균관대 농대교수를 선출했다.

한편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美 Wisconsin주립대 Calvin Cramer 교수의 「고능력우의 사양」을 비롯 「낙농시설에 관한 연구」 「암모니아 및 가성소다처리 벗짚 급여가 젖소의 산유능력에 미치는 영향」 「Kluyveromyces lactis 기원의 β -galactosidase에 의한 lactose가수분해중 생성된 소당류의 경시적 변화」 「국산버터와 마아가린의 지질에 관한 연구」 「혼파초지에서 구성초종과 혼파비율이 수량 및 화학성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발표됐다.

韓國化學工學會

韓國化學工學會(회장 金炳珍)는 7월21~23일까지 3일간 백암동해관광호텔에서 금년도 하계특별심포지움을 개최했다.

「國際化時代를 맞은 韓國의 화학공업」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朴健裕KAIST 공정개발연구실장의 「석유화학공업의 신공정소개」에 관한 기초강연에 이어 「한국의 노사관계-회고와 전망(金大模 중앙대교수)」 「공업소유권의 국제

화동향과 이에 따른 특허전략(李鐸淳 특허청국장)」 「기술우위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방향(全炳植 국립공업시험원장)」 「기업에서의 기술개발(韓洪燮 동양화학중앙연구소장)」 「기초연구와 산학협동(李漢周 연세대공대학장)」 등 주제발표가 있었다.

韓國情報科學會

韓國情報科學會 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는 8월17~19일 3일간 홍익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88프로그래밍언어 하계강좌를 실시한다.

전자학 관련분야의 전문종사자들을 위한 이번 프로그래밍언어강좌에서는 최근 연구소, 기업체 및 교육기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언어를 주제로 하여 C언어의 발달에서부터 C언어의 문법과 의미론 및 고급 프로그래밍 관련 기술들을 부산대 권혁철박사, 전북대 김명렬교수, 숭실대 유재우박사등 3명의 강사가 강의를 맡는다.

한편 동학회는 학회사무실을 서초구 방배동 984-1 태산빌딩 301호로 옮겼다. 전화 588-9246

大韓數學會

大韓數學會(회장 林植埜)는 내년 7월 서독에서 개최되는 제30회 國際數學올림피아드에 파견할 대표선발을 겸한 제2회

韓國수학올림피아드를 오는 9월4일 개최한다.

高校 1, 2년생을 대상으로한 이번 수학올림피아드의 응시원서 접수는 7월20일까지.

韓國水文學會

韓國水文學會(회장 姜瑋遠) 제30회 水工學연구발표회가 7월29일~31일 3일간 성균관대에서 열려 초청강의 두편과 연구발표 20편이 있었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는 농업진흥공사 梁在晚지하수부장의 「지하수 수문모델링에 관하여」 日本 京都大 Hiroji Nakagawa 박사의 「Stochastic Approach to Sediment Transport problems」등 두편의 초청강의와 「해안·해양」 「수리, 수치해석 및 수자원시스템」 「일반수문학」등 3개분과에서 20편의 일반연제가 발표됐다.

韓國纖維工學會

韓國纖維工學會(회장 宋石圭)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금년도 하계세미나를 8월4~6일 3일간 수안보관광호텔에서 개최했다.

「섬유의 고부가가치기술」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섬유기술진흥센터 張哲植씨의 「원질절상과 섬유공업」에 관한 특별강연에 이어 「용융방사에 의한 아크릴섬유의 제조」등 8편의 연제가 발표됐다.

科總회원단체 8月 학술행사 계획일정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일자	장소
대한환경공학회	신 응 배	세미나	8. 1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섬유공학회	송 석 규	하계세미나	8. 4~6	수안보관광호텔
한국향해학회	윤 점 동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8. 5	한국해양대학
한국농업과학협회	오 봉 국	농업과학심포지움	8. 5	농촌진흥청
한국조경학회	안 봉 원	임시총회 및 학술발표회	8. 5~6	전북대학교
한국고분자학회	노 익 삼	제10회 고분자하계대학세미나	8. 8~11	속리산관광호텔
한국목재공학회	이 원 용	하계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	8. 9	인천올림픽포스호텔
한국정보과학회	김 종 상	제1차 교수튜토리얼	8. 9~12	인천송도비치호텔
한국과학교육학회	김 현 재	중등분과세미나	8. 10	충북대학교
한국지구과학회	윤 흥 식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8. 12~13	서울대학교
한국부식학회	남 종 우	파이프라인부식 및 방식심포지움	8. 18~20	한양대학교
한국요업학회	안 영 필	제3회 유리심포지움	8. 19	중소기업회관
한국식물학회	강 영 희	심포지움	8. 19	한국과학기술원
공기조화냉동공학회	최 상 흥	하계특별강연회	8. 20	충남대학교
한국응용근충학회	우 건 석	학술발표회	8. 20	전남대학교
한국과학교육학회	김 현 재	초등과학하계워크숍	8. 20~21	포천군 이곡국민학교
한국경영과학회	나 응 배	제1회 아세아태평양지역 경영과학회학술대회	8. 24~26	세라튼워커히호텔
대한화학회	최 재 시	제26회 연회 및 추계총회	8. 25~27	전북대학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 봉 수	원자력품질보증교육	8. 26	한국전력공사
한국약제학회	지 용 길	하계심포지움	8. 26	한국제약협회
대한전자공학회	이 태 원	음향 및 신호처리연구 학술발표회	8. 26~27	한양대학교
한국정보과학회	김 종 상	전남지부 제2차 학술발표회	8. 27	조선대학교
대한산업공학회	김 영 휘	수리계획법세미나	8. 27	고려대학교

韓國遺傳學會

韓國遺傳學會(회장 金英眞)는 오는 10월28~29 양일간 팔래스호텔에서 창립10주년기념 학술대회 및 韓·獨 分子遺傳學심포지움을 개최한다.

특히 한·독분자유전학심포지움에서는 독일측에서 Konrad Beyreuther박사(U. Heidelberg)

를 비롯 8명의 관계전문가와 국내에서李世永교수(고대농대교수)등 8명이 분자유전학의 최신연구결과를 발표한다.

大韓機械學會

大韓機械學會(회장 趙宣策)는 금년도 제2차 동력학 및 제어부문 학술강연회를 7월23일 한국과학기술원 학사부강의실

에서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서울대 李長茂박사가 「소음·진동해석 응용사례에 대하여」 성균관대 최연선박사가 「동적시스템의 강비선형진동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김중희과장이 「자동차 구조 개선을 위한 실험적 모드 해석의 응용」 국방과학연구소 김영대박사가 「무한 궤도형 차량동력계의 설계」등 4편의 학술강연이 있었다.

超高速 256KS램 開發 成功

三星半導體通信, 16나노秒로 世界最高速

三星半導體通信(사장 姜晋求)은 지난 7월21日 순수한 국내 자체技術로 세계 최첨단 반도체인 超高速 256K S램 개발에 성공하여 試製品 생산에 들어감에 따라 S램의 超高速化時代를 열었다.

超高速 256K S램은 1메가 D램과 같은 수준의 고도기술을 요하는 메모리제품으로서, 三星半導體通信이 지난 1986년의 SLOW 256K S램 개발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세계 최첨단의 속도 16나노초의 초고속 256K S램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S램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로 부상하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三星半導體通信이 개발한 초고속 256K S램은 器興연구소의 崔圭現박사를 중심으로 김병윤, 강호규 연구원 외에 16명의 개발팀이 86년 7월에 개발에 착수하여 꾸준한 연구개발 끝에 24개월만에 개가를 올린 것이다.

특히 초고속 256K S램은 세계 최첨단공정기술인 텅스텐 실리사이드와 더블메탈 공정기술을 이용한 多層配線構造의 최신공정을 확립함으로써 세계반도체산업의 기술적인 면에서도 큰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번 三星半導體通信이 개발

성공한 초고속 256K S램은 기존의 제품보다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常溫에서의 정보처리속도가 16나노초(1나노초-10억분의 1초)의 超高速, 高集積반도체인데, 현재 반도체 S램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SLOW S램(100-120나노초)에 비해 속도가 6~8배나 빠르며, 소비전력면에서도 타회사 FAST S램에 비해 1/2정도인 低消費전력의 C-MOS제품이다.

한글 標準코드 지원방안

韓國 IBM서 發表

한국IBM은 8월초 9370, AS/400등의 중형시스템에서 3090등의 대형시스템에 이르는 제품군에 대한 한글표준 코드 지

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원방안에 따르면 한국 IBM은 한글표준 코드에서는 정의되어 있으나 현 IBM부호계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 문자를 추가로 정의한 새로운 IBM부호계를 마련하고 이 새로운 부호계와 한글표준 코드간의 코드 변환기능을 시스템 370(937X, 43X1, 30XX), AS/400, 55X0, S/1 및 4700 금융단말시스템 환경하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기 IBM기종을 사용하는 고객은 정기종과의 정보교환시 한국IBM이 제공하는 코드 변환기능을 이용하여 한글표준 코드로의 정보교환이 가능케 될 것이다.

이번의 표준화계획은 사용자의 기술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창의적 발전성과 유연성을 허용하는 한편 국제표준의 충분한 검토와 수용을 동시에 감안하고 있다.

高速型 256KD 램 量産에 착수

現代電子, 情報처리 60나노秒

現代電子(대표 鄭夢憲)는 기존제품에 비해 정보처리속도가 2배가량 빠른 高速型 256KD RAM을 개발, 양산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한 256KD RAM은 정보처리속도가 60나노초(1나노초는 10억분의 1초)에 불과해 기존 상품의 정보처리

속도인 120~150나노초에 비해 2배가량이나 빠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MOS(相補型금속 산화막체조기술)를 채용하여 일반 256KD RAM보다 10분의 1이상 전류소모가 적을 뿐 아니라 잡음을 이겨내는 특성도 강하다.